



사랑의 집짓기 기술봉사

## 이종환



문창살을 만들기 위해 대패질을 하고 있는 이종환씨.



수많은 문창살 조각 하나하나를 깎고 만드는 과정은 백을 깎는 고통과 인내가 따른다. 하지만 이종환씨는 자신이 만든 문창살들이 모여 우주택자들을 위한 집으로 만들어질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 마음 열면 세상과 통하는 문 열려요

대구시 동구 괴전동의 한 목공소. 창호 부문 문화재 수리 기능자(제3409호) 이종환(54세)가 구석구석 세워진 재목들 사이를 누비며 작품 구상중이다. 가족나무는 붉은 색이 일품이고, 느티나무 괴목은 문양이 화려하다. 나무를 통해 창호의 탄생을 꿰뚫는 눈이 예사롭지 않은 이씨는 초등학교 졸업 이후 동네 목공소에서 기술을 익혀온 이 분이 최고의 장인이다. 1968년에는 대구지방 기능대회 1위를 수상했고, 1969년 벨기에에서 열린 제18회 국제기능 올림픽대회에서는 특상을 수상한 경력자로 올해는 전국기능대회 심사장까지 역임했다. 게다가 최근에는 20여년간 꾸준히 저축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저축왕이란 독특한 이력으로 국민훈장 목련장까지 수상했다. 그러나 저축왕이란 타이틀보다 더욱 그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있다. 저축과 함께 실천해 온 사랑의 보시다.

대구 SOS 어린이 마을에 매월 후원금을 낸 것이 15년을 훌쩍 넘었고, 결핵요양원 '밀알회'와도 13년째 인연을 맺고 있다. 이렇게 이씨가 사회의 어렵고 힘든 곳에 내는 성금은 1년에 60만원이 넘는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10여 년 넘게 한결같이 이어온 일기기에 더 값있다. 더군다나 수입이 한결같은 일반 직장인도 아니고 겨울철에는 일감이 없어 3-4개월 동안 생활비 마련조차 어려웠던 이씨다. 그러나 이씨는 오히려 별것 아니라며 손사래를 친다.

"원래 목수는 연장 자루 하나만 놓으면 바로 돈 떨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월 저축금 이자를 불우이웃에 보시  
이웃 위한 창문 만들때 행복에 젖어  
장기수 찾아 직업교육, 재화에 '큰 힘'  
사찰창호 문양 연구·보급에도 관심

이씨는 결혼 이듬해 겨울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생활비가 푹 떨어졌기 때문이다.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난감했다는 이씨는 여름철에 풍족히 쓰다가 일 없는 겨울철에 가니 걱정하는 선배들의 생활을 되풀이할 수 없어 저축을 시작했다. 그때마다 생기는 원금의 이자를 불우이웃이라 생각한 이씨는 그것들을 그냥 가질 수 없어 이웃을 돕는 후원금으로 내기 시작했다.

"한꺼번에 목돈을 내는 것은 어렵지만 저축하듯 매월 한 구좌씩 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씨는 어려운 일이 닦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그래서 불우이웃돕기, 지하철 조사 희생자 돕기, 태풍 매미 피해자 돕기 등 각종 성금 모금에는 무조건 동참해야 마음이 편하다.

그의 보시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요즘 그에게는 딱 맞는 새

로운 일이 있어 더 기쁘다. 2003년부터 동참하기 시작한 '사랑의 집짓기 운동'이다. 사랑의 집짓기 운동연합회 대구경북지회(이사장 신일희)는 매년 집 없이 어려움을 겪는 4가구가 모여 살수 있는 연립주택 1채씩을 지어 보시한다. 여기서 이씨는 40여 년간 갈고 닦은 기술을 발휘해 창호와 문을 만들어 설치하는 봉사를 하고 있다. 이씨는 "돈으로는 후원하는데 한계가 있어 늘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기술로도 돈으로 후원하는 그 이상의 값어치를 할 수 있으니 기쁘고 보람이 큼니다"고 즐거워 한다.

어렵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창을 만들기 시작한 그가 최근 열중하는 일이 또 있다. 대구교도소 장기수들에게 직업훈련 교육을 시키는 일이다. 창을 만드는 일을 넘어 세상으로 소외된 이들이 직접 창을 내고 호흡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씨는 4년째 매주 수요일이면 어김없이 대구교도소를 방문한다. 그에게 배우는 재소자는 20여명이 넘는다. 전국기능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하고 감형을 받아 출소한 이도 있다.

"삶의 의미를 잃고 교도소에서 청춘을 소진한 이들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새 일을 발견하는 것은 그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화의 의지를 기르는 이들에게 작은 힘을 보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씨는 나무를 만지며 작품을 구상하고 수많은 문창살 조각을 다듬어 짜 맞추는 때가 가장 행복하다. 수많은 문창살 조각 하나하나

를 깎고 만드는 과정이 고되고 힘들지만 문창살 조각이 맞춰지면서 완벽한 조화의미를 이룰 때 이씨는 큰 희열을 느낀다.

전국을 다니며 전통 문양 연구에도 힘쓴 이씨는 전통 사찰 창호에 담긴 뜻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씨는 빠르고 편한 것만 찾는 요즘 세상에 요묘한 조화의 미와 세상 진리를 모두 내재하고 있는 전통창호가 사라지고 소외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특히 기술을 전수받겠다는 젊은이가 없어 걱정이다. 혹 관심갖고 찾아온 젊은이가 있다해도 보다 많은 돈과 명예를 좇아 가버리기 일쑤다.

"나는 딱 한 방울 흘리며 한 계단 오르는 가운데 기쁨과 행복을 느끼며 살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양에 차지 않는 모양입니다. 젊은이들이 자부심을 갖고 전통창호를 보존할 수 있도록 정부의 대우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씨는 높은 곳만 쳐다보는 젊은이들도 자신의 나이가 될 즈음 아무리 높은 곳이라도 한결음씩 차분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알게 될날이 올 것이라고 강조한다.

평생 나무를 만지며 전통창호를 만들어 온 이씨는 "우리 조상의 얼과 진리의 뜻을 담고 있는 전통창호의 보급에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한결같은 걸음으로 어려운 이들을 위해 세상과 소통하는 수많은 창호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다짐도 잊지 않았다.

대구=배지선 기자·사진=박재원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지관 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35번지  
전화 053)982-0101~2 / 팩스 053)985-4405 / www.donghwasang.net

### 대한불교조계종 제 9교구본사 동화사

조실 법원 진제  
주지 일응 지성

- |     |    |            |
|-----|----|------------|
| 부주지 | 수성 | 금당선원       |
| 총무  | 선광 | 선원장 정봉 지환  |
| 기획  | 상원 | 승가대학       |
| 교무  | 삼현 | 강주 원허 지운   |
| 재사회 | 법경 |            |
| 사무  | 법대 |            |
| 포교  | 일법 |            |
| 번호  | 법법 | 종무원 및 신도일동 |